

# 중국 '남중국해 거론' 일본 방위백서 격분

## “중국군에 대한 악의 가득

### 인근 국가와 혼란 부채질”

#### 잘못된 언행 중단 강력 촉구

한국에 이어 중국도 2016년 일본 방위 백서를 질타하면서 중국군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양위권(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일본 방위백서와 관련한 성명에서 “이 백서는 중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위 업무를 왜곡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를 부각하는 진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군에 대한 악의(惡意)가 가득 차 있고 중국과 인근 국가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며 국제 사회를 속이려 하고 있다”

면서 “나르던 돌에 자신의 발을 찰지 않기 위해서 일본이 잘못된 언행을 중단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일본이 백서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데 격분했다.

양위준 대변인은 “일본에 상기시키고 싶은 점은 항해의 자유가 남중국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 왔으며 다른 역의 국가들의 개입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중국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위준 대변인은 일본 방위백서가 센카쿠 열도 인근에 중국의 군사 훈련이 늘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중국군 훈련은 전적으로 이 열도가 중국에 속해 있다는

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최종 목표가 군비 증가와 군 보유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 등 정책을 대규모로 변모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양국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일본 방위백서가 거짓말과 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이 백서가 중국군을 이 지역의 위협 세력, 중국을 국제법 위반자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이 백서는 편견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 백서가 중국 정부를 겨냥해 센카쿠 열도부터 남중국해 문제까지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일본은 지난 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관련해 “평화적 발전을 주장하는 한편 특히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는 맞지 않는 독자적 주장에 근거해 힘을 배경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지역 영유권 주장을 배제한 상설중재재판소(PCJ)의 지난 달 판결 내용도 백서에 2차례 걸쳐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와 무관을 별도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 “힐러리 찍을래” 트럼프 등진 공화당 인사들

미국 공화당의 3선 하원의원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신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리처드 한나 하원의원은 2일(현지시간) 시러큐스닷컴 기명 칼럼에서 “나로서는 트럼프 발언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공화당에 봉사하기에도, 미국을 이끌기에도 부적합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화당에서 트럼프에 반감이 있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클린턴을 찍겠다고 선언한 현역 의원은 그가 처음이다.

뉴욕 출신인 그는 “많은 이슈에서 클린턴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클린턴에게 투표하겠다”며 “클린턴이 나라를 잘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 확대, 여성 건강보험 지원 등 자신이 헌신해온 많은 분야에서 클린턴이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한나 의원은 공화당원을 향해 “이 결정

정을 많은 당원이 반기지 않겠지만 언젠가 진정한 후보를 갖고 승부를 겨루는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은퇴하기로 했으며, 그의 지역구인 뉴욕 22선거구는



크리스티 주지사

2012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가 49.2%를 얻어, 버락 오바마(48.8%) 대통령을 근소한 차로 앞섰다.

트럼프의 공화당 내 최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티 주지사의 전 참모 역시 트럼프 대신 클린턴에 투표하겠다고 선언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경선에서 하차하기 전까지 핵심 참모 역할을 맡아왔던 마리아 코멜라(35)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15년간 공화당 원칙에 따라 일해온 사람으로서 더이상 침묵할 수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멜라는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부정확한 정보와 외설적인 어법으로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하고, 공포와 증오를 부추겨온 선동가였다. 클린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틀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핵심 참모 셸리 브래드쇼도 지난 1일 “여성혐오자이며 편견에 사로잡힌 자아도취자”라며 공화당 탈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의 지역구인 뉴욕 22선거구는 /연합뉴스

## 리우 치안, 지나쳐도 문제...

### 과잉 대응에 인명피해 급증

브라질 당국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치안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가운데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일(현지시간)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국제연세네스티(AI)는 올해 4~6월 각종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 넘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AI는 5월에만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지난해 5월보다 135%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리우에서는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열릴 때마다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미주대륙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판 아메리카 대회가 리우에서 열렸을 때는 경찰에 의한 사망자가 2006년보다 30%가량 늘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에 발생한 사망자는 2013년 대비 40% 증가했다.

리우올림픽이 다가오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치안 문제다.

브라질 정부와 공공치안연구소(ISP)의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1~5월 리우 주(州)에서 발생한 강·절도 사건은 4만8429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리우 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2083건이었다.

경찰의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 리우 주에서는 올해 60여 명의 경찰이 각종 사건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 희생자가 아따르면서 경찰의 과잉대응을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 기간에 리우 시 일대에 배치되는 치안 인력은 군인 2만2000명을 포함해 모두 5만5000명 규모에 달한다.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프랑스 루앙 대성당의 자크 아멜 신부 장례식에서 그의 유해가 운구되고 있다. 아멜 신부는 지난달 26일 생테티엔 뒤 루브레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한 두 10대 청년에게 살해됐다. /연합뉴스

## IS 피살 프랑스 신부 장례식 엄수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한 10대 청년에게 최근 살해된 자크 아멜(86) 신부 장례식이 2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루앙 대성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장례 미사는 도미니크 르브링 루앙 대주교가 집전했으며 베르나르 카즈노브 내부장관을 비롯해 수천 명이 참석했다.

르브링 대주교는 미사에서 “당신(아멜 신부)이 칼에 찔려졌을 때 당신은 바로 범인들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미사에 참석한 아멜의 여자형제인 로 즐린 아멜은 참석자들에게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자”고 당부했다.

아멜 신부가 어디에 묻힐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매장 행사에는 소수 가족만 참가한다.

장례 미사가 열린 루앙대성당은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에 대비해 경비

가 강화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아멜 신부는 일주일 전인 지난 26일 루앙과 가까운 생테티엔 뒤 루브레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 아멜 케르미슈(19), 압델 말리크 나빌 피티장(19)에게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됐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게 사살된 테러범들은 생전 IS에 충성을 맹세한 동영상을 남겼으며 사건 직후 IS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에서 지난해 이후 대형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카즈노브 내부장관은 작년 12월 이후 설교 등으로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모스크(이슬람사원) 20곳가량을 폐쇄했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베트남 박장 주의 한 방직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웃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 베트남, 내년 최저임금 7%대 인상

### 현지 한국 기업 4000곳 부담될 듯

40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내년에 7%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 업계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부와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베트남노동총연맹(VGCL)으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 임금 인상안을 7.3%로 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내부 검토와 베트남 주재 외국 상공인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변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 대표인 VGCL은 현재 지역별로 108~157달러(12만~18만 원)인 월 최저임금을 11.1% 인상할 것을 요구했

지만 사측 대표인 VCCI는 4.62% 인상안으로 맞서왔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 17.5%에서 2014년 14.9%, 2015년 14.8%, 2016년 12.4%로 둔화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임종현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장은 “한국 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8% 주장했다”면서 “두 차례 외국 상공인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변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 대표인 VGCL은 현재 지역별로 108~157달러(12만~18만 원)인 월 최저임금을 11.1% 인상할 것을 요구했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 20년경력 조역사 010-6211-4585  
경,공매 NPL 컨설팅

### 경매 추천물건

- ★ [공정]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산단 삼성전자 인근 대지 3,293㎡ 건물 1,495㎡ NPL추천물건 감정가 17억5천 ▶최저가 12억2천
- ★ [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카이라인시 상가 483㎡ 카페,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정가 8억7천7백 ▶최저가 6억1천3백
- ★ [상가]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인근 대로변 2층상가 토지 735㎡ 건물 449㎡ 감정가 11억8천7백 ▶최저가 8억3천1백
- ★ [상가] 무안군 남악신도시 메인 상업지구 3층상가 건물 238㎡ 카페, 식당, 병의원 추천 감정가 5억1천 ▶최저가 1억8천2백(36%)
- ★ [공정] 광주 광산구 안창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감정가 57억6천7백 ▶최저가 25억8천3백(45%) 기아차공장인근
- ★ [상가]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정가 21억3천2백 ▶최저가 14억9천2백
- ★ [공정]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인근 신축 공장 유통시설활용가능 대지 5,585㎡ 건물 1,510㎡ 감정가 10억9천7백 ▶최저가 6억1천4백(56%)
- ★ [임몰] 광주 북구 두암동 원로건물 대지181㎡ 건물320㎡ 감정가 2억6천5백 ▶최저가 1억8천5백 투자추천

###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은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8백만원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월18억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매매 48억 (요양병원허가취득)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 70% 용적 250% ▶급매가 4억4천(급매, 조정무)

###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60㎡ 대로변 내외부개곳 ▶매매 4억(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수 다수 직영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 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한라산 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자산동 대지 288㎡ 건물 1,088㎡ 원룸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역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상가] 목포시 연산동 롯데슈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